

K-MaaS 앱(슈퍼무브) 하나로 철도·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!

- 전국 MaaS(K-MaaS) 모바일 앱(슈퍼무브)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
-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(10.30~11.29)도 추진

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철도·항공·버스·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(어플리케이션, 슈퍼무브)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*(K-MaaS) 서비스를 본격 개시(10.28)한다.

* MaaS(Mobility as a Service): 통합교통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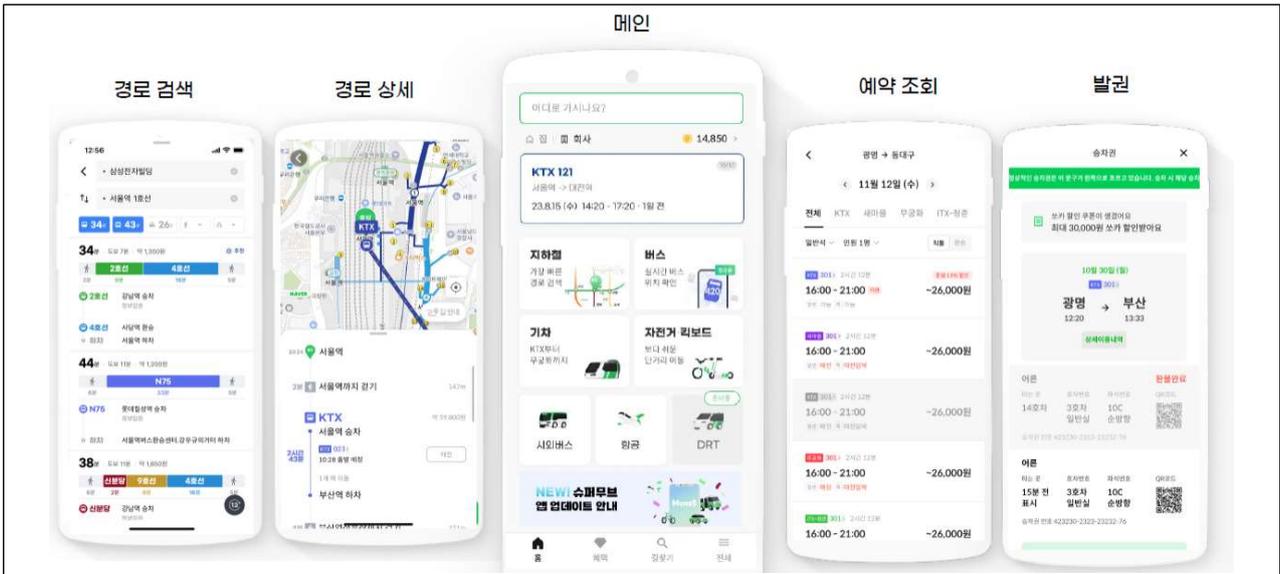
○ K-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‘슈퍼무브’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,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·항공·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·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,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.

□ 그간 대광위는 K-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·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·선정(‘23.1~2), 민·관 업무협약 체결(‘23.4~), 국민체험단 운영(‘24.1~5) 등을 추진해 왔다.

○ 중계 플랫폼사업자(한국도로공사)가 여러 운송사*의 정보를 통합·중계하고,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(슈퍼무브)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.

* 철도(코레일), 항공(노랑풍선·선민투어), 시내버스(TAGO), 시외버스(버스연합회), 개인형 이동수단(지바이크) 등

< K-MaaS 슈퍼무브 앱 이용화면(출처: 슈퍼무브 제공) >



□ 대광위는 K-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(10.28)한 데 이어, 향후 교통과 관광·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(‘24.10.30~11.29)를 실시한다.

○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·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,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(~’24.12)한 후,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·출시(서비스 플랫폼사업자)할 예정이다.

* 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(www.molit.go.kr/mtc)을 통해 확인 가능

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“K-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,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,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”이라며,

○ “앞으로, K-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,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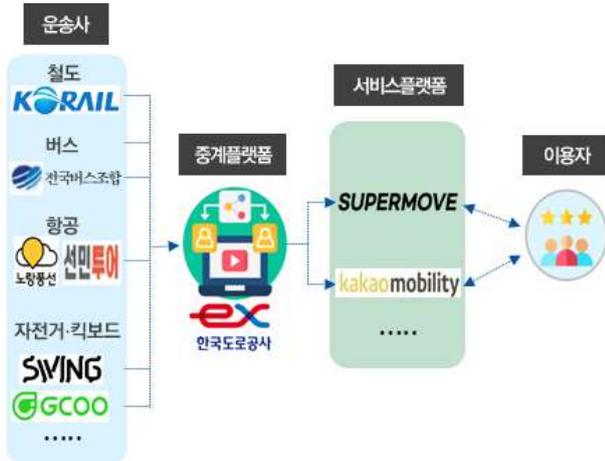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이창기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5082)
		담당자	주무관	송승민 (044-201-509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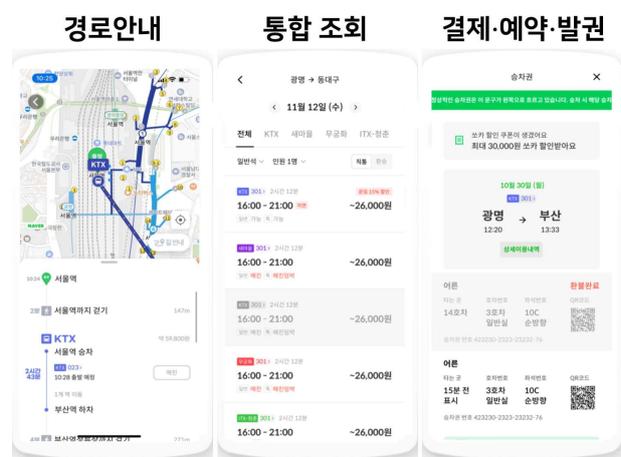
□ K-MaaS(Mobility as a Service) 개요

- MaaS는 철도·버스·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앱으로 경로 검색, 예약·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념
- 현재 대부분 교통수단은 경로검색(네이버지도 등) 후, 각 수단별 앱(코레일톡 등)으로 예약·결제하고 있어, 여러 앱을 설치하는 등 불편
- 향후, MaaS가 실현되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예약·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, 국민 이동편의 혁신 기대
- 그 외에도, 교통을 기반으로 관광·숙박·보험 등 분야가 연계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되는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 발전 가능

【 K-MaaS 추진체계 개념도 】



【 K-MaaS ‘슈퍼무브’ 앱 이용 화면 】



□ 시범사업 추진현황

- 운송사 실시간 운송정보 제공 → 공공 중계플랫폼(도로공사) 통합·중계 → 민간 서비스플랫폼(슈퍼무브) 앱 개발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추진
- 철도·항공·버스 등 운송기관을 연계하여 전국 단위 서비스 실현
- * (참여기관) 한국도로공사(중계플랫폼), 슈퍼무브(서비스플랫폼), 한국철도공사(철도), 버스연합회(시외버스), 노랑풍선·선민투어(항공), 지바이크(개인형 이동수단) 등
-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수단 및 채널(앱) 다양화 추진